



사이타마현은 ‘절구 인형·히나 인형’ 출하액에서 전국 1위를 자랑합니다. 그중에서도 이곳 사이타마시 이와쓰키구는 일본 유수의 생산지로, 이와쓰키에서 만들어지는 ‘이와쓰키 인형’과 ‘에도 키메코미 인형’은 경제산업대신이 지정한 전통 공예품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인형 가게나 공방의 간판이 눈에 띄며, 장인들의 손에서 매일같이 인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와쓰키는 에도 시대에는 이와쓰키번의 성 아래 마을이자 닛코 도쇼궁으로 이어지는 닛코 오나리미치의 역참 마을이었으며, 근대 이후에는 인형 생산지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와쓰키 번주를 지낸 다이묘 가문의 자료 등을 전시하여 이와쓰키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성 아래 마을에서 ‘인형의 고향’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또한, 이와쓰키 장인들이 숙련된 기술로 만들어낸 화려한 히나 인형, 표정이 풍부하고 ‘귀여운’ 에도 키메코미 인형 등을 전시합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 인형의 세계를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